

# Daily Auto Check

2021. 10. 13 (Wed)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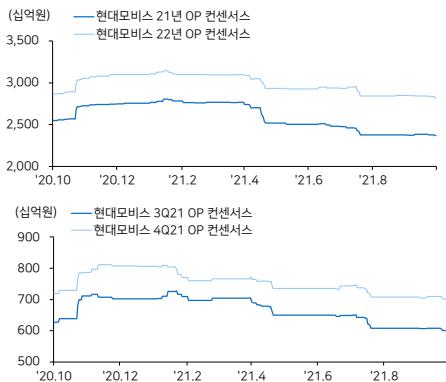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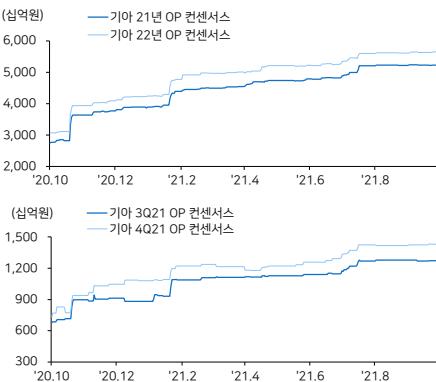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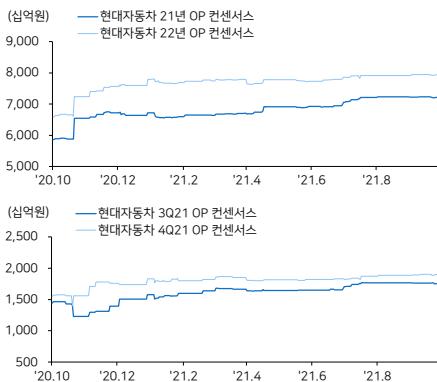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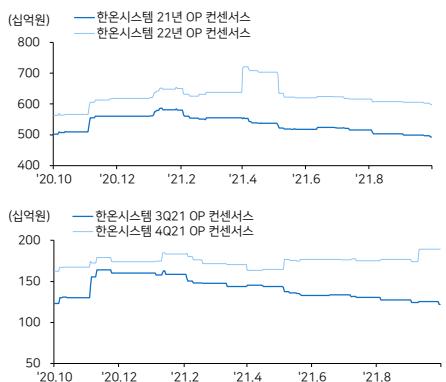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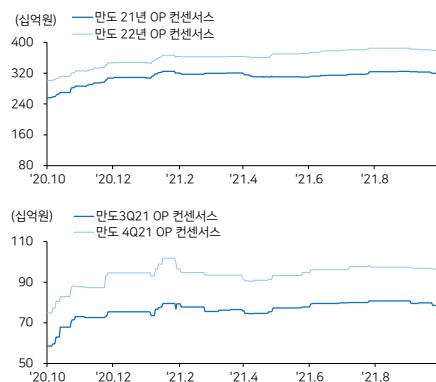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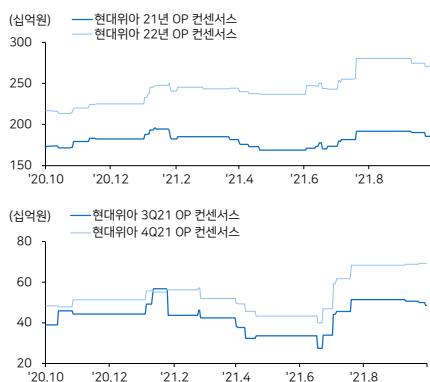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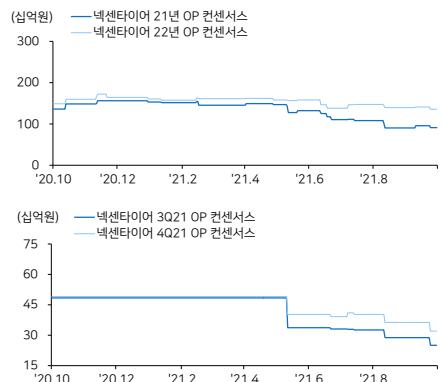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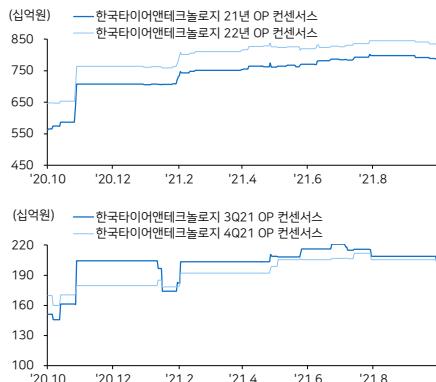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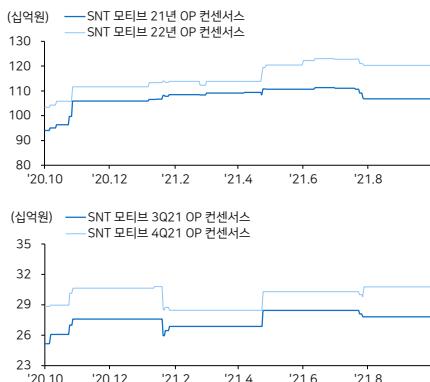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미래차 속도내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뉴스)

현대자동차가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 수요응답형 로보서틀,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 원격 자율주차 기술 개발을 위한 자율주차타워 등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

<https://bit.ly/3auVnC3>

### 현대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로드맵, "메타버스로 완성도 높인다" (Hello T)

메타콘 2021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더해진 현대차그룹의 비즈니스 로드맵이 공개. 스마트 모빌리티 디비전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비전에 증강현실 기반 메타버스가 적용될 듯.

<https://bit.ly/3FCXmt4>

### "미시간, 포드 선택 받지 못해 충격적"...미래차엔 고향 없다 (한국경제)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부지로 미시간 대신 테네시를 선택했으며, 테슬라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함. 이는 캘리포니아의 둘은 대만·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으로 미시간 대신 테네시를 선택했으며, 테슬라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함. 이는 캘리포니아의 둘은 대만·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으로 미시간 대신 테네시를 선택했으며, 테슬라는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함.

<https://bit.ly/3ay1ZafN>

### Toyota plans to make up some lost production as supplies rebound (Reuters)

토요타는 지난 9월 연간 생산목표를 30만대 줄여 900만대로 조정하였으나, 올해 12월~내년 3월 사이 97,000대의 차량을 추가 생산할 움직임을 보임. 동남아시아 감염률이 떨어지고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됨.

<https://reut.rs/30Mqg4f>

### 현대차, 베트남 다시 고속질주...9월 판매 87% 수직상승 (THE GURU)

현대차 베트남 핵심사 현대타일은 지난 9월 MoM +87% 성장한 4,079대를 판매함.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4,327대로, 소형 세단 '액센트'가 판매량을 견인함. 현지 보건정책 및 출하량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

<https://bit.ly/3mQecfK>

### "신차 출고 지연 영향"...'차반도체 소티지'에 물값 오른 중고차 (이데일리)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감가상각으로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올해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어 중고차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중. 여전히 현대차 투싼(하이브리드) 등 신차 가격을 추월한 매물이 등장.

<https://bit.ly/2x9vcE1>

### 중국 9월 신차 206만대 판매...전년비 19.6% ↓ (뉴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의 9월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6% 대폭 줄어든 206만7,000대를 기록. 반도체 부족·장기화·선별공급 제한 여파로 5개월째 감소한 1~9월 누계는 yoy +8.7% 증가한 1,862만대를 기록.

<https://bit.ly/3FlgNAQ>

### 테슬라, 9월 중국산 전기차 5만6,006대 판매...394% 폭증 (글로벌이코노미)

테슬라 중국법인의 9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94% 폭증한 5만6,006대로 2년간 최고 기록을 달성함. 모델 Y 인도량은 3만 3,033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닉오(10,600대)와 사오펑(10,400대)의 9월 인도량도 역대 최고 기록.

<https://bit.ly/3v31cqA>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